Global p/4
102세 노인의 축구사랑

metro

Sports p/20
메시 '원맨쇼' – 바르사 8강

欢迎来乐天城

더 많은 뉴스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서비스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하세요

[乐天城] "从购物到酒店的一站式服务"

从韩国流行的集散地明洞入口过一条马路就是相当于14个足球场大小的"乐天城"，乐天城通过细分消费层的创新性发明、被具体划分为乐天百货总店、AVENUEL名品馆 青春广场等。光顾这里的顾客可根据自己的喜好，购买从中低价品牌到高档品牌等不同档次的商品。尤其是确保一线连结的顾客移动路线，提供更高层次的服务。

1979年开店的乐天百货是先导大韩民国购物文化的是顶级百货店，主导着韩国的流行趋势。从国外精品到生活用品、消费者需求的商品应有尽有。

如果想要更高档次的购物，找AVENUEL名品馆即可。2005年开店的AVENUEL是可体验购物和艺术文化及康乐生活方式的特殊而舒适的购物空间。提供是佳的顾客服务和顶级价值的商品，为日常生活中感到疲惫的顾客提供休闲的购物环境。

青春广场是2003年开店的国内第一家年轻时装专门店。通过从日本直接进口的无印良品、优衣库 PIXDIX等个性化的文化生活空间，为顾客提供丰富多彩的快乐经验。

首尔乐天酒店堪称国内最佳特级酒店，拥有国内最大规模的1120间客房，宽敞的会议室和宴会厅等多种设施。2007年开始到2009年，经过五次翻修本馆的全部客房，每个楼层具备了富于特色的客房。还拥有以法国料理的顶级餐厅而闻名世界的首尔皮埃尔-加涅尔等10多家餐厅和酒吧。每天在首尔乐天酒店和国际乐天酒店、麻浦乐天城市酒店和金浦乐天城市酒店之间运行班车。

한국 트렌드의 집결지 명동 입구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축구경기장의 14배에 달하는 롯데타운이 있다. 롯데타운은 소비계층을 나누는 혁신적인 발상에 따라 롯데백화점본점, 명품관 에비뉴엘, 영플라자 등으로 세분화됐다. 중저가 브랜드는 물론이고 고가의 브랜드까지 누구나 입맛에 맞는 폭 넓은 쇼핑이 가능하다. 다욱이 한번에 잇는 고객 동선을 확보해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979년 개점한 롯데백화점 본점은 대한민국 쇼핑문화를 선도하는 최정상의 백화점이다. 한국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명품에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췄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쇼핑을 원한다면 에비뉴엘을 찾으면 된다. 2005년 개점한 에비뉴엘은 쇼핑과 예술 문화,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하고 편안한 쇼핑 공간이다. 최상의 고객 서비스와 최고 가치의 상품을 제공하며 일상에 지친 고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쇼핑환경을 구축했다.

영플라자는 2003년 개점한 국내 최초의 영패션 전문관이다. 차별화된 문화생활 공간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 2012년 본점 영플라자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및 스트리트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국내 최고의 특급호텔로 손꼽히는 롯데호텔서울은 국내 최대 규모인 1120개의 객실, 넓은 공간의 회의실과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10개의 레스토랑과 바도 갖췄다. 신관 35층에 위치한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은 국내 유일 미슐랭3스타 셰프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국내 호텔 최초 HACCP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본관 37층에 위치한 도림은 중식 명장 여경옥 셰프와 홍콩 본토 조리장 2명이 선보이는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본관 38층에 위치한 무궁화는 1979년 호텔 개관과 동시에 문을 열어 주요 국빈 만찬을 담당했다. 정통 반가 상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고품격 한국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과 롯데호텔월드, 롯데시티호텔마포, 롯데시티호텔김포 사이를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도 매일 운행중이다.

/김현정기자 hora@[illegible]@metroseoul.co.kr

[乐天城] 为中国顾客的定制型服务

乐天城以中国顾客为对象强化定制型服务。

乐天百货总店从2012年起正式开始提供汉语口译服务，现在共有20名汉语口译译人员被安排在1楼综合服务台及各个楼层．在各种情况下为中国顾客提供口译翻译。

在春节、劳动节、国庆节等中国顾客增加时期，共有300多名职员在商城内用汉语帮助中国顾客的购物。

随着中国游客的增加，积极扩充相关人员和新设专门机构。通过组成国际营销部门，实施诱导中国游客访问的促销策划和海外在线媒体促销策划、海外信用卡公司、游客相关机构（医疗机构和酒店等）之间的合作营销，中国优秀顾客管理等更加深层次的管理业务。

为了扩大为固定顾客的便利和优惠，从去年8月份开始在总店4楼开设了游客专用休息室"国际休息室(Global Lounge)"。平时供每年在乐天百货店总店购买1000万韩元以上商品的外国顾客利用，给每天购买500万韩元以上商品的外国顾客提供一次性利用券。在该休息室里品尝茶点，享受休闲的同时，还可接受出口退税服务。

乐天百货店计划为中国优秀顾客开展更加积极的营销活动。首先以中国顾客为对象计划在年底前实施MVG制度(Most Valuable Guest)。根据购物款金额给予积分，并根据所累积的分数赠送高档礼品。

以中国当地店铺的优秀顾客和当地富豪俱乐部为对象 通过专机提供韩国旅游项目．而且定期发送由乐天百货店制作的时装杂志"AVENUEL时装杂志"中文版等，诱导中国游客访问国内店铺以及争取更多回头客。

롯데타운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쇼핑도 문제 없다—롯데백화점 본점은 2012년부터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 20명의 중국어 통역 인원이 1층 통합데스크에 근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중국인 고객에게 통역 서비스를 한다.

글로벌마케팅 담당도 구성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 유도 프로모션 기획, 해외 온라인 매체 프로모션 기획, 해외카드사·관광객관련업종(의료기관·호텔 등)과의 제휴 마케팅, 중국인 우수고객 관리 등 보다 심도 있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정고객을 위한 편의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본점 4층에는 유커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라운지인 '글로벌 라운지'를 열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연 1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은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 당일 5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도 1회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 라운지에서는 다과 등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텍스리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우수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MVG제도(Most Valuable Guest)를 연내 오픈한다.

중국 현지점포의 우수고객과 현지 부호클럽을 대상으로 전세기를 통한 한국 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롯데백화점에서 제작하는 패션잡지인 '에비뉴엘 매거진'의 중문판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국내 점포 방문 고정고객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기 높은 한국 브랜드는—롯데타운에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다양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과거 명품 화장품·여성 정장 등 고가제품 중심에 선호 브랜드가 한정돼 있던 데 반해 최근 중저가 중심의 개성이 강한 브랜드로 구매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 중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에비뉴엘에 따르면 올해 춘절 기간(2월 18일~22일)에 스타일난다(온라인의류), 라인프렌즈(캐릭터 상품), 투쿨포스쿨(화장품)이 상위 브랜드로 기록됐다. 이어 의류편집매장 원더플레이스, 뉴발란스, MCM, 레드아이(액세서리), LG생활건강(샴푸 등의 가공샴푸)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사진=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metro Mexico

metro Brazil

Pacote anticorrupção chega ao Congresso

호세프 대통령 탄핵위기 벗어날까

탄핵 위기에 몰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 수립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이 기관 간 계약에서의 불법 자금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불거진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뇌물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호세프 대통령은 2013년 6월 발의된 공직자 비리 척결 관련 법률과 같은 해 9월 1000만 헤알(약 207억원) 출금의 부패기업 제재 관련 법률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정리=김서이기자

metro France

Vitrolles : des zèbres galopent en plein

서커스단 탈출한 얼룩말 두마리

도심에 나타난 얼룩말을 촬영한 동영상이 프랑스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두 얼룩말을 담은 10초짜리 영상은 현재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촬영된 영상엔 얼룩말 두 마리가 도로 반대방향에서 뛰어오고 이에 놀란 자동차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한 마을로 두 얼룩말은 시내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얼룩말의 이름은 피기(Figu)와 엘사(Elsa)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얼룩말 두 마리는 30분가량 시내를 돌아다니다 곧 서커스 단원에게 잡혔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Russia

102-летний болельщик

102세 노인 못말리는 축구 사랑

102세 노인의 열혈 축구 사랑이 화제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첼랴빈스크 주에 거주 중인 오토 피셰르가 FC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FC 디나모 모스크바 경기에서 시축을 했다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FC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최고령 축구팬인 피셰르는 스파르타크를 상징하는 흰색과 붉은색 수건을 목에 걸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피셰르는 오랜 맞수 디나모의 골문을 향해 힘껏 공을 찼다. 이를 지켜본 관중들은 열렬히 최고령 축구팬을 위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피셰르의 가족 바체슬라브는 "의사는 건강을 염려해 모스크바 방문을 말렸지만 스파르타크 팀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막을 수 없었다"며 "피셰르 할아버지는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심장박동조절장치를 착용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했다"고 말했다.

피셰르는 "스파르타크 팀과 선수들 덕분에 모스크바 경기장을 방문하고 디나모와의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며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출신인 피셰르는 1935년 스파르타크가 창단될 때부터 열성팬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모스크바를 떠나 첼랴빈스크로 이주했지만 스파르타크에 대한 응원은 멈추지 않았다.

피셰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을 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건강을 잘 유지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독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정리=이국명기자

"내 음악은 영화 전반에 녹아있다"

영화 '버드맨' 작곡가 안토니오 산체스 인터뷰

올해 아카데미의 선택은 멕시코였다. 멕시코 출신인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영화 '버드맨'으로 4관왕을 휩쓴 것이다. 메트로 멕시코가 '버드맨'의 숨은 주역이자 세계적인 드럼 연주자 안토니오 산체스(44)를 만났다. 산체스는 멕시코시티 출신으로 다섯 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해 10대 시절에 이미 프로 연주가로 이름을 날린 아티스트다.

▲ '버드맨'에 참여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2013년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이 작품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작업 제안을 했다. 평소 존경한 감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 다만 드럼 솔로 하나만으로 영화 음악을 채워야 해서 조금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 작업 내내 만족스러웠다.

▲ 어떠한 각오로 영화 음악 작업에 임했다

관객들이 드럼 세트가 주인공 마이클 키튼(리건 역)의 머리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키튼의 일상의 일부로 그가 느끼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가 드럼 비트로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영화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 드럼 소리가 영화에 덧씌워진 것인지, 키튼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장이다 길거리에서 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독과 내가 목표했던 것이다.

▲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은

믿을 수가 없었다. 드럼 소리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편집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거의 드럼이 주인공인 것 같았다. 보통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은 관객이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버드맨'은 달랐다.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준다. 오케스트라 영화 음악 사운드처럼 관객을 조종하려 들지 않는다.

▲ '버드맨'이 오스카 4관왕을 받았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느꼈던 흥분과 자긍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보통 아카데미는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다. '버드맨'이 음악상 부문에서 실격 처리된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씁쓸했다. 하지만 '버드맨'이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각본상까지 받자 '내 음악은 영화 전반에 녹아있으니 결국 실격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매우 기뻤다.

▲ 영화 음악가로 계속 활동할 생각인가. 향후 계획은

당분간 밴드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동)'에 집중해 올해 두 장의 앨범을 낼 계획이다. 첫 번째 앨범은 정통 재즈 앨범이고, 두 번째 앨범은 '버드맨' 주제와 약간 비슷하다. 작품의 원테이크 기법처럼 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연주가 이어지는 곡이다. 이밖에 멕시코, 유럽, 남미, 일본, 중국 순회 공연이 예정돼 바쁜 한해를 보낼 것이다.

/다니엘 오캐노 기자·정리=정윤하기자

자원외교 검찰수사 산은·수은으로 확산

MB정부, 국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종용…수백억대 손실발생

자원외교와 관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검찰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은행은 전 정부때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추진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러시아 유전사업의 비리와 관련,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의 수사를 국책은행으로 확대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 지원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주는 제도다.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이 감면된다.

재원은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으로 이뤄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경남기업은 약 350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아 석유공사와 함께 러시아 캄차카, 미국 멕시코만,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광구 등에서 석유 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했다. 검찰은 이중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지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상당액이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니켈광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 투자금의 25%(38억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100%(154억원)를 지급한 것.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의 유전 개발 계열사 인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수사받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을 포함해 1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5년 만인 지난해 8월 매입가의 13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에 매각했다. 현금 회수금액은 300억원대에 불과하다. 석유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받은 성공불융자액도 2245억원에 달한다.

수은과 산은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유가스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자원개발 1호 펀드(트로이카 펀드)와 자원개발 2호 펀드(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서 총 167억원의 손실을 냈다. 단소펀드에서는 3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앞서 MB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거쳐 수은이 해외은실가스 감축사업,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를 종용했다.

산업은행이 주도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도 잠정 손실액이 7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원금 대비 75% 수준이다.

브라질 법인의 손실액은 2009년 323억원, 2010년 1407억원, 2013년 446억원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자원외교를 강조하다보니 국책은행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metroseoul.co.kr

요즘 경매장, '꾼'보다 '일반인'

정보 접근 용이한 주거시설 위주 입찰 증가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경매 4계 입찰 법정 앞에서 입찰자가 게시판을 주시하고 있다.

오전 9시30분. 법정 문이 열리고 한 관계자가 사건번호가 기입된 매각기일부를 게시판에 걸었다. 일찍감치 법정 문앞을 지키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게시판 앞으로 몰렸다. 입찰 물건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경매 4계 입찰 법정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어머니 손을 잡고 나온 청년, 딸을 대동한 아버지 등 소위 '꾼'보다는 평범해 보이는 일반인들이 더 많아 보였다. 한 노부부는 경매전문가와 함께 길자리에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최저가보다는 높게 쓰셔야하고요. 입찰표 받으면 제가 알려드릴테니 걱정마세요. 제가 하라는대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오전 9시45분. 집행관이 입장했다. 15분간 주의사항에 대한 입장 연설이 있은 후, 오전 10시 입찰표가 배부됐다.

"11시 10분 개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간 안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맨 앞 줄에 비치된 경매 물건 관련 서류를 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이다. 법정에 자리한 노년의 한 전문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 혀를 찼다.

"오기 전에 다 보고 왔어야지 와서 보면 뭘 하나 알겠지. 요즘에는 경매 자습 하는 일반인이 많이서 저걸 다 보고 앉아 있지."

오전 11시10분. 총 31개의 상매건 중 8개의 사건번호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차량 두 대를 제외한 6건이 모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거부동산이었다. 투자든 실거주든 당장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경매시장이 재편된 것을 의미했다.

이날 20명의 최다 입찰자를 낸 사건번호 2014-7***는 신대방동에 위치한 16㎡ 규모 다세대주택 1채였다. 감정가 9900만원, 세 번의 유찰로 최저가가 5000만원 선까지 떨어진 물건이다. 낙찰가는 7647만원으로 2위와는 458만원 차이를 보였다. 낙찰가율은 77.24%. 최근 다세대·연립주택 낙찰가율이 상승세인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이다.

오후 1시45분. 이날 입찰 결과를 전달받은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대방 건은 최근 경매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한 사례로 보인다"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부터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낙찰가율과 거의 흡사하게 낙찰된 건"이라고 풀이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또 유찰되면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입찰에 참여한 실수요자들이 그걸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이날 였었던 낙찰건 모두 정보 접근이 용이한 주거 설비 위주였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이같은 경매 추세는 전세난이 끝나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기자 kimu0904@

신한銀, 호치민시 안동지점 개점…리테일 시장 공략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시(市) 안동지역에 현지화 특화점포를 개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오른쪽 세 번째부터)위재열 신한은행 부행장, 홍승천 호치민 부총영사, 쩐 티 티오 호치민 5군 인민위원장 등이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수은, 베트남 당국 사업 EDCF 2500만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티엔당 상수도 2차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3차 사업에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임성혁 수은 경협사업본부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쯔엉 찌 쭝(Truong Chi Trung)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티엔단 상수도 2차 사업에는 1500만 달러의 EDCF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동나이성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과 보건위생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는 1000만 달러의 EDCF가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당국의 기후변화대응 국가목표프로그램(NTP-RCC)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전략의 개발·실행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녹색 프로그램이다.

임성혁 수은 경협사업본부장은 "이번 차관공여계약이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국가 발전 단계를 반영해 사회 경제인프라 구축사업과 기후변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겸 발행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06

또 부실기업에 발목잡힌 은행권

모뉴엘 등 3곳 이어 이번엔 경남기업…"2조 지원 불구 회생 불투명"

지난해 기업발(發) 악재에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이 또다시 부실기업이라는 '시한폭탄'을 맞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한전선, 모뉴엘 등 3대 부실기업의 악재로 모두 1조원의 손실을 봤던 은행권이 올해도 부실기업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이 속속 출현하면서 부실기업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폭탄을 투하한 곳은 경남기업이다.

현재 3번째 워크아웃을 밟고 있는 경남기업은 그간 채권단으로부터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재작년(3109억원)과 지난해(1827억원)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자본잠식'이란 적자폭이 커져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2300억원이 넘는 추가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받는 등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지난 18일 러시아 유전개발, 아프리카 니켈광산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채권기관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채권단 회의에 정식으로 부의가 되고 나서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사를 거쳐 산정되며 또다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경남기업이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 뒤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협력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전선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앞서 채권단은 2012년 자율협약 후 대출 7000억원 출자전환과 5200억원 신규대출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달 1600억원 추가대출을 결의하며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대부분의 자본이 잠식돼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경고받았다. 부실기업의 지난해 말 분식회계 혐의로 채권단은 200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입은 바 있다.

만약 부실이 더 쌓이면 대한전선 상장은 폐지되며, 채권단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은 '휴짓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채권단의 채권 비중은 ▲산업은행(채권비율 16.6%) ▲우리은행(14.7%) ▲하나은행(14%) ▲외환은행(12.8%) ▲국민은행(11%) ▲농협은행(10.6%) ▲신한은행(9.1%) ▲수출입은행(7%) 등이다.

조선 분야도 업황 부진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다만 채권단 내 기류가 부정적으로 흐르며 지원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SPP조선은 채권단에 485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간 후 5년 동안 600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은 채권단에 42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결국 채권단이 경남기업과 대한전선, SPP조선, 성동조선 등 4개 부실기업에 이달 안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금액은 1조2550억원이다.

한편 잇따른 기업 부실로 은행권 순익이 급감하는 등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조7000억원이었던 은행권 순익은 4분기 3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대출의 부실은 결국 가계대출 부문의 이익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은행권 부실기업 문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표 준법감시담당자와의 'CEO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사장과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LIG손보, 준법감시담당자와의 간담회

LIG손해보험은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헌 사장과 대표 준법감시담당자의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업계 한쪽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준법감시 담당자들에게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강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규 LIG손보 준법감시인 본부장은 "사고는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철저한 내부 통제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는 정직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IG손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사 업무부서의 매뉴얼을 개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계층별 교육체계도 정비했다. /김형석기자 khs@metroseoul.co.kr

삼성카드 이사모아와 이사 견적 실시간 서비스

삼성카드는 19일 합리적인 이사를 위해 '실시간 이사 견적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카드는 이사견적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이사모아와 단독 제휴를 맺었다.

이는 이사업체 위주로 진행되던 이사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은 기한의 일정과 이사유형, 지역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이사 업체들이 자사의 견적을 제안하게 되는 구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고객은 합리적인 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사 업체는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건설업계 잇단 구설수…"불똥 튈라" 긴장감

포스코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중흥건설 등 검찰수사

포스코건설, SK건설, 경남기업에 이어 중흥건설까지 검찰의 수사 목록에 오르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자금 조성, 입찰 담합, 자원외교 비리 등 각기 받고 있는 의혹은 다르지만 사정당국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불법을 한 혐의를 잡고 중흥건설 본사와 일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대지구 사업 시행사의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위법 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불법범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중흥건설은 개발 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캐나다 유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패 시 빚을 탕감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이용,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1부는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123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3일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사업과 관련해 내부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17일에는 협력사 3곳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지난 1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12일 공정위원장이 SK건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4개 건설사가 구설수에 오르자 건설업계는 겉으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내심 검찰 수사의 사정권에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건설사가 몇이나 되겠냐"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 훈풍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경남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올해 4600~1만7000여 가구의 분양계획을 잡고 있다. 당장 포스코건설과 SK건설이 현대건설과 함께 20일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중흥건설도 수도권 쇄대이는 곳이는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를 상반기 공급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분양도 계획대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사가 확대될 경우 건설사들의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혀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향후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0820@

코스피 6개월만에 2030선 돌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19일 코스피 지수가 203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9.44포인트(0.47%) 오른 2037.89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030선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美, 금리인상 9월 무게

전문가들 "국내 경제회복 기회될 것"

미국이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8일(현지시각)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삭제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은 하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오는 6월이 아닌 9월을 유력하게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강조한 만큼, 지난 2월 고용지표(실업률 5.5%)만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2% 목표치도 올해 달성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인플레이션율 2%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선 에너지 가격, 임금, 주거비 등이 핵심 변수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지난해 12월보다 하향 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점이 9월로 지연될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진단했다.

현재 임금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달러화 강세가 미국 기업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3월 연준 회의록에 '미국 수출 성장률 둔화'가 추가된 점과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현재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볼 때 금리 인상은 3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수출 둔화 언급은 미 달러의 가파른 강세와 신흥국 경기둔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유나 동부증권 연구원 역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폭과 근원 물가 상승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모두 내린 것을 종합해볼 때, 금리 인상 시점이 6월 이후로 늦춰지거나 연내 1회, 많아야 2회 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유동성 기대감도 높아졌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연합뉴스

미국 연준의 FOMC 이후 뉴욕 증시는 1% 이상 올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3bp 하락한 1.93%까지 밀려났다.

외환 전문가들은 "강달러 압력이 약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효과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금리가 인상된다 해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에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미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김민지기자 min@metroseoul.co.kr

'미사강변리버뷰자이'에 한강조망 특화평면 적용

GS건설이 이달 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공급하는 '미사강변리버뷰자이'에 한강을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우선 전용면적 102㎡(B타입) 40가구의 거실을 북쪽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거실=남향'이라는 인식을 전환해 북쪽으로 거실을 배치함으로써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누리도록 했다. 대신 주방과 방 3개는 남향에 위치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동 최상층에는 전용 126㎡와 132㎡로 구성되는 펜트하우스(총 10가구)가 들어가 타입에 따라 거실, 침실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펜트하우스 전 가구에 테라스를 마련해 일부 가구는 테라스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부 아파트 동 코너에 3면 발코니를 적용해 침실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에는 한강조망 특화설계 말고도 사전 공급에서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다양한 특화평면을 도입한다.

102B타입 한강 조망 이미지.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서비스 면적이 극대화되는 3면 발코니를 전체 555가구 중 40% 이상 적용할 예정이다. 또 수요자들의 취향에 따라 침실, 펜트리, 가족실 등 3가지 타입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평면을 도입했다.

조삼대 GS건설 분양소장은 "A1블록은 단지와 한강 사이에 다른 건물이 없어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특급 입지"라며 "한강 조망 특화설계뿐 아니라 3면 발코니, 선택형 평면 등도 적용됐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91~132㎡, 총 555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번지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되며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현대건설, '왕십리 센트라스' 20일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한 '왕십리 센트라스'의 견본주택을 2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하 6층, 지상 28층, 32개동, 전체 2789가구 규모로 아파트 2529가구와 오피스텔 260실로 이뤄졌다. 이중 전용면적 40~115㎡ 아파트 1171가구와 오피스텔 243실이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직접 연결되며, 2·6호선 신당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인근으로 이마트, CGV, 동대문쇼핑몰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고, 성동구청, 한양대병원 등도 가깝다.

왕십리뉴타운 마지막 아파트인 만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 센트라스에 고객 중심형 [illegible]을 선보였다.

우선 기가인터넷 시대에 맞춰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가구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할 예정이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의 각종 서비스를 쉽게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에는 핸드폰 트레이 부착형 휴지걸이를 만들어 스마트폰을 두기 편하도록 했다. 드레스룸에는 각종 IT기기를 별도의 충전기 없이도 충전시킬 수 있는 USB타입의 콘센트가 설치된다.

왕십리 센트라스 조감도.

외출 시 현관에서 일괄조명 차단과 대기전력 차단, 가스 차단, 난방 외출 모드 등이 모두 가능한 '홈네트워크 절전 보안 통합 스위치'도 설치한다. 보일러의 배기열을 회수, 효율성을 향상시킨 고효율 콘덴싱보일러와 씽크대에는 절수 페달을 달았다.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통행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조명을 설치하고, 모든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시공한다. 비상시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욕실 비상콜 버튼도 만들어진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주거만족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4월 1~2일 발표되고, 계약은 7~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700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NH투자증권, 중국주식 투자 설명회 개최

NH투자증권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중국주식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왜 중국인가? 후강퉁과 선강퉁, 새로운 투자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중국 경제와 시황을 알려주고 최근 NH투자증권과 MOU를 체결한 중국 자오상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투자유망 종목에 대해 안내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선강퉁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국 현지 리서치를 활용한 후강퉁 투자전략 및 종목을 심도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후강퉁·선강퉁 유망종목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hwm.com) 및 고객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면 된다. /[illegible]기자

형사처벌 재벌가 총수들 배당으로 얼마 받나

SK 최태원 329억원·CJ 이재현 배당금 118억원 달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이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정책과 맞물려 거액의 배당금을 손에 쥐게 됐다.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과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독려하면서 대부분 그룹사 소속 상장계열사들이 배당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최대 수혜자는 결국 재벌 총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총수가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329억7000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SK C&C는 지난달 5일 2014년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현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SK C&C 지분 32.92%를 보유한 최 회장의 배당금은 329억1621만원에 달한다.

SK케미칼(3.11%), SK(0.02%) 등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타 계열사의 배당금을 합칠 경우 배당금은 329억6830만원으로 늘어난다.

SK C&C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 아니냐"며 "다만 구속 수감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자신의 보수 전액은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구치소 대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총 118억6687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이 회장은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 회장은 CJ그룹의 지주사인 CJ 지분 42.22%를 보유하고 있으며 CJ제일제당(0.49%), CJ프레시웨이(0.68%), CJ오쇼핑(0.32%) 등에도 개인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지분 15.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총액은 2억1066만원이다. 이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수감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과 형집행정지를 반복하고 있다.

소액주주 임을 밝힌 SK C&C주 지자는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수백억이 증발하면서 놓친 신사업 기회들에 대한 '기회비용'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관계자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된다"고 말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주주로서 출자한 대가를 받는 것인 만큼 옥중에 있는 재벌 총수들이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의 경제활성화 취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hyppyjh@metroseoul.co.kr

현대차, 코엑스에 현대모터스튜디오 디지털 개관

현대모터스튜디오 디지털 내 대형 스크린(Live Theater)에서 고객이 차날 및 색상 등 선택해 나만의 차량을 만들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모터스튜디오 디지털' 운영을 19일 시작했다.

사측에 따르면 현대모터스튜디오 디지털은 실제 차량 없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현대차와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고객 소통 공간이다.

현대차는 이번 디지털관에 ▲가로 6.2m, 세로 2.6m의 대형 스크린(Live Theater)과 개인형 터치모니터(My Car Zone)를 통해 차종, 색상, 옵션 등을 선택해 2만6000여 가지의 조합 중 나만의 차량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했다.

또 ▲3D 모니터를 통해 차량의 입체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3D Wall)도 만들어 고객들이 실제 차량 없이도 차량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대차와 자동차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구루(Guru)'를 배치해 세심한 맞춤형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차를 경험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가까운 지점이나 시승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현재 판매 중인 현대차 차량에 적용되는 다양한 내·외장 색상과 내장재 원단 가죽 샘플들을 전시하고 가십 주행 체험 코너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물로 현대차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메트로 기자

기아차, 신형 K5 렌더링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는 19일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다.

기존 K5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간결한 면처리와 볼륨감을 더해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전면부에 라디에이터그릴과 에어커튼을 중심으로 넓고 과감한 형태를 통해 강렬한 느낌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기존 K5의 정제된 면과 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볼륨감을 더해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

후면부는 슬림한 리어램프와 연결감 있는 캐릭터라인에 더해 입체적인 하단 범퍼 조형을 살렸다.

기아차는 다음달 2일 신형 K5의 외관을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K5는 2010년 출시 이후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 최우수상, iF 디자인 어워즈, 굿 디자인 어워즈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정필기자

노틸러스효성, 나이지리아에 지문인식 ATM 선보여

노틸러스효성(대표이사 손현식)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최초로 지문인식 ATM(자동금융거래단말기)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효성 측은 카드절도·카드복제 등 보안사고가 잦은 나이지리아의 문제를 보안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ATM을 개발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지문인식 ATM은 비밀번호식보다 노출 빈도가 낮아 보안이 더 강하고 지문 프린팅 등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서류작성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효성은 지난 2년간 나이지리아 내 금융권 시장에서 약 2100대의 ATM을 판매하는 등 2009년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한 후 빠르게 성장했다.

손현식 노틸러스효성 대표이사는 "올해는 은행권을 집중적으로 공략, 현지고객과의 파트십을 바탕으로 추가 제안을 확보해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시장 내 효성의 위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리기자

쉐보레 스파크, 3월 선수금 없는 전액 무이자할부

쉐보레는 이달 스파크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수금이 없는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파크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선수금 없이 차량가격의 전액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할부 원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초저리 할부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2.9% 금리와 견줘 45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스파크와 같은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정의 계약금만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도입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할부 기간에 따라 최대 30%에 육박하는 선수금 부담을 줄인 구매 혜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purchase/installment-rate.gm)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필기자

한국타이어,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40대 기증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2015 행복을 향한 드라이빙' 사회복지기관 차량 나눔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신청기관의 사업 특성과 지역을 고려해 서류 심사, 전문가 심사, 현장 실사를 거친 후 40개 기관을 선정해 각 1대씩 총 40대의 경차를 기증할 예정이다.

차량 지원을 원하는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은 소정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4월 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차량지원 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홈페이지(http://hankooktire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리기자 10sound@

이웅범 LG이노텍 사장 실적 개선 드라이브

주력사업 강화·신사업 육성 강조…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

이웅범(사진)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이 주력사업 강화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실적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

이 사장은 2012년 취임 후 LG이노텍의 흑자전환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지난해 매출 6조4661억원, 영업이익 3140억원을 기록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G이노텍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50여 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제39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 사장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력사업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이끌어내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해 미래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기술력은 10%대 후반 시장 점유율로 업계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다. 즉 카메라 모듈 사업 성장과 함께 신사업 육성에 집중해 실적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고객과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차량 부품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주준히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왔다. R&D 투자 규모는 2012년 2870억원에서 2013년 359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3706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그 결과 독일과 일본 기업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빠르게 급성장했다. 현재 LG이노텍의 자동차 전장부품은 모터와 센서 등 20종에 달한다. 덕분에 차량전장부품 사업 매출은 2009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5325억원으로 6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날 LG이노텍은 ▲지난해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은 25분만에 조용히 마무리됐다.

LG이노텍은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 사장을 재선임하고 권일근 LG 시너지팀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35억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재무제표 승인과정에서 3년 만에 현금배당을 승인해 눈길을 끌었다. LG이노텍은 그동안 무리한 배당을 하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년 간 무배당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제39기 배당금은 주당 현금 250원인 총 59억원으로 결정됐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대용량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열어

삼성전자가 3비트(bit)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업계 최대용량의 128기가바이트(GB) 스마트폰용 내장 메모리를 본격 양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초고속 'UFS(유에프에스, Universal Flash Storage)' 메모리를 선보인 데 이어 내장스토리지 표준 규격인 'eMMC 5.0'을 적용해 고성능 3비트 내장메모리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폰용 대용량 내장메모리 출시로 소비자들은 업계 최대 용량의 스마트폰을 더욱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128GB 내장메모리 라인업을 통해 모바일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더욱 높이고, 3비트 낸드플래시 사업 영역을 기존 SSD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용 내장메모리 시장까지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고성능 메모리카드(90MB/s)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초당 260메가바이트의 연속읽기 속도를 구현했다. 또 이번 제품은 메모리카드 대비 10배 빠른 5000 IOPS(아이옵스, Input Output Per Second)의 임의쓰기 속도와 4배 빠른 6000 IOPS의 임의읽기 속도로 표준형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해 고해상도 동영상과 멀티태스킹 작업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LG전자 주총 23분 만에 속전속결 마무리

최준근·홍만표 사외이사, 주종남·최준근 감사위원 선임
구본준 부회장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 사업발전 가속화"

LG전자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23분만에 끝났다.

LG전자는 19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도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의 주재로 주총을 열었다. 이날 주총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3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주총에 참석한 600여 명의 주주들은 배당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주총에서 홍만표 법무법인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와 최준근 전 J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감사위원에는 최 이사와 주종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올해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억원으로 책정됐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구 부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주총에 불참했다.

구 부회장은 영업보고서에 실린 CEO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국제 유가 하락의 여파가 확산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면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한발 앞선 준비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혁신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사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사장은 "올해 사업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사업을 영위하는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 부문에서 시장 선도 제품 출시를 통해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홈엔터테인먼트(HE) 사업본부는 올레드(OLED) TV와 울트라HD TV로 차세대 TV 시장을 주도하고,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는 G시리즈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보급형 라인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태블릿, 웨어러블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LG전자 캐릭터 폰 '아카'로 해외 시장 공략

LG전자가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캐릭터 폰 '아카'의 해외 시장 판매를 결정했다. 이는 '아카'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된 캐릭터폰 '아카'는 출시 5개월만에 20~30대 젊은 층에게 주목 받으며 10만 여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시아권 소비자들이 아기자기한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아카'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LG전자는 20일부터 캐릭터 폰 '아카'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터키 등 아시아·중동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해외 출시 버전에 감성적 UX(사용자경험)를 추가로 탑재한다. 해외 소비자들이 '눈동자 홈상' 주변에 연결, 눈썹 등 다양한 이미지로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게 했다. 또 한국, 중국 등에서 4월부터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롤리팝' 업그레이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로 유명한 투바앤(TUBAn)은 LG전자와 기획 단계부터 공동 개발한 애니메이션 로터리파크(Rotary Park)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국내외 소비자들은 유튜브 웹페이지를 통해 로터리파크 본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BMW "삼성SDI와 미래 배터리 개발… 3시리즈에도 탑재"

BMW가 삼성SDI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 내년 출시되는 BMW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라우스 드레거 BMW 구매 및 협력업체 총괄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BMW 본사에서 열린 BMW그룹 연례 기자회견에서 "작년 삼성과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는 함께 미래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향후 다른 업체와 손잡을지는 확언할 수 없다. 오직 확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재 삼성과 굉장히 좋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 또는 10년 후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배터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 1곳은 업체에서 납품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BMW그룹의 고위 임원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특정 배터리 업체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는 BMW그룹이 삼성SDI와의 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됐다.

삼성SDI는 지난해 7월 방한한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중장기적으로 BMW그룹에 수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엔 BMW 3와 5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양소리기자

포스코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파이넥스 공장 기술개발 과정서 정황 제기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국내에서도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됐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국내에서도 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의 파이넥스 공장을 짓는데 1조600억원, 연구개발비로 55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07년에 지어진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은 자연 상태의 가루 철광석과 유연탄을 철로 만드는 곳이다.

이같은 파이넥스의 석탄처리 기술개발 과정에서 포스코그룹의 고위간부가 지난해 조. 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포스코 현직 감영진은 특허기술인 파이넥스 공법 연구개발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내부고발지 보고도 고의로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식회계를 발견한 내부감사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사측은 오히려 이들을 대기발령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회사자원에서 은폐했다는 진술을 포스코 직원들로부터 확보하고, 담당 간부를 소환해 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반의 경영비리와 MB정부 실세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MB정부 실세들의 지원을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재임 동안 진행한 그룹 계열사들의 인수 합병 과정과 비자금 조성 경위를 검찰이 쫓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들이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흥우산업 등 협력사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흥우산업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40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흥우산업 이철승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의 국내 공사에 참여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정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당시 최고경영층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필기자 romen@metroseoul.co.kr

KT, '001 쉐어링' 출시기념 이벤트

KT는 모바일 기본제공 통화량으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001 쉐어링(Sharing)'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해당 서비스 가입자 전원에게 5000원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5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있는 '001 쉐어링 상담 신청하기'에 응모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선물하고 이 중 2명을 추첨해 최신 노트북을 증정한다. 또한 이번 이벤트를 SNS에 홍보한 고객 100명을 뽑아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6월 3일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상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 국제전화국 이금성 국장은 "KT의 국제전화 001은 작년 국가고객만족도 등(4대 브랜드 파워(KCSI·NCSI·NBCI·K-BPI))의 국제전화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001을 이용해 고객이 편리하고 부담없이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hanaky@

LG유플러스 소상공인 중기 마케팅 지원 'e메세지' 출시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결과 분석을 제공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 'e메시징'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e메시징 서비스는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메일, 문자, 팩스 발송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토탈로 제공하고 고객의 반응을 분석한 분석 결과 리포트를 제공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패션 종합 쇼핑몰 등을 운영할 경우 단 한 번의 로그인 만으로 문자, 팩스, 이메일을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e메시징'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대표 수단인 메일은 이벤트 공지, 광고 홍보, 뉴스레터 발송, 상품 구매 안내, 예약 등 상품광고부터 고객관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발송 건당 수신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엑셀 등의 파일형식으로 대량의 수신자 정보를 한 번에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발송 대비 메일 확인 건수, 내용 클릭 건수, 메일 내용 중 세부 링크별 클릭 건수, 읽지 시간 요일별 오픈·클릭 수 등 메일을 수신한 고객의 반응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향후 타겟 층 설정 등 마케팅 방향 설정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최기무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는 "e메시징 서비스는 중소 사업자들도 손쉽게 온라인 마케팅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동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고객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e메시징'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충전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시 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보너스 캐시(Cash)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김지연기자 happyyjn@

"2020년까지 1조원 투자…공장 스마트화"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생산방식이 확산되도록 장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생산방식을 적용,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올해 중 전자·자동차·중공업·철강 등 8대 업종별, 주요 10개 대표기업 주도로 기획·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협력사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풀뿌리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조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특히 연내 제조 IoT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상용화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인항공기,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2017년 150억 달러 신규 수출을 달성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조기에 창출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시장수요가 검증된 무인기 등에 올해 604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집중적 R&D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또 독일, 프랑스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전략적 공동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를 위해 4조 1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동력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훈기자 sbh@

SK텔레콤, 한국 이동통신 30년 기념호 발간

SK텔레콤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 전문 학술논문지인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의 한국 이동통신 30년 기념호 발간 2014년 이동통신분야 최우수 논문에 대한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는 SK텔레콤이 격월 간격으로 발간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기업 학술지다. 5G, IoT 등 ICT 융복합 기술과 정책 분야의 신학연간 학문 발전과 교류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한국 이동통신 30년 기념호는 이동통신 역사와 궤를 같이 한 SK텔레콤의 창사 30주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특집으로 구성됐다.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간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준 논문에 상이 수여됐다.

올해의 논문은 ICT기술과 경제정책 각 분야에서 선정됐다. 서울대학교 김성철 교수의 '무선 이동통신채널의 특성 및 표준화 동향'과 연세대학교 김희선교수의 'ICT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성과평가와 시사점'이 영예를 안았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는 현재 1776개 정부기관, 대학, 국립도서관, 연구실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별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SK텔레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익환기자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내달 1일부터 발급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축산업·어업 건설업·서비스업 분야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다음달 1~14일 접수한다고 18일 공고했다.

인력 충원을 원하는 사업주들은 이 기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을 통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작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1월·4월·7월·10월, 농축산업과 어업은 1월·4월,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1월·4월에 하도록 정했다.

점수제에 따라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모두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외국인이 적을수록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 사기 많을수록 ▲신규 고용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에 고용센터가 알선한 내국인 고용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신규 외국인력 배정 결과 발표는 4월 24일 오후 3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EP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유입 규모는 5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24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6000명, 어업 2300명 수준이다.

Application for Issuing New Foreign laborers employment warra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announced on the 18th that they will start receiving New Foreign laborers employment warrant for those working in manufacturing business, Fishing business, Construction business and Service Business.

Business owners who wish to recruit employees can visit their nearest Recruit Center or send the registration form at www.eps.go.kr.

The disposition of new foreign laborers this year will be made in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for manufacturing business, January and April for farming, livestock and Fishing business, January and April for construction and service business according to the decision made last year by Foreign labor force policy committee.

Evaluation is made by applying point system. This system is applied in manufacturing business, fishing business, construction business and service business. Higher points are given depending on the following conditions. Lower foreign laborer employment rate than the permitted limit. More re-employment rate compared to the recruitment of foreign laborers. Lower rate of new applicants. More native Korean employment rate during the recruitment period.

The disposition of the new foreign labor force will be announced on April 24th at 3 through text message and it can also be checked online at EPS homepag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inflow of foreign laborers (with E-9 visa) will be 2000 more that last year which is 55,000 people. Manufacturing business has 42,400 people ranking number 1, 6000 in Farming and livestock business and 2300 in the fishing business.

/[illegible] Chris Kim [illegible]

음악 서비스도 스트리밍이 대세

매출 29% 증가 … 1위 넘봐

미국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매출이 CD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스포티파이(Spotify)나 랩소디(Rhapsody)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시리우스 XM(Sirius XM)같은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업체들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8억7000만 달러(약 2조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전년보다 29%나 증가한 수치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 음악 산업 전체 규모(69억7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올라갔다.

새로운 부흥기를 맞은 LP 레코드판도 지난해 3억1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거의 50% 증가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CD의 매출은 18억5000만 달러로 12.7%나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음악산업 매출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한 디지털 다운로드의 경우 2012년 정점을 찍고 나서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25억8000만 달러의 매출로 전년보다 8.7% 하락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에 그쳤다.

이처럼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음악인들과 음악 공급업계 사이에 새로운 파워게임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 무료서비스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인 뒤 스포티파이에서 아예 자신의 음악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이용자들을 다른 유료서비스로 유도하는 데 무료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캐리 셔먼은 "음악 산업은 믿기 어려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레코드회사들은 이제 디지털음악 회사들이며 수입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분야에서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국현기자 [illegible]

日 첫 방문 미셸 여사, 아키에 日총리 부인 만나 일본을 첫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왼쪽)가 19일(현지시간) 도쿄의 리큐라 기념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사과없이 미국 방문하려는 아베

다음달 26일 방미 조율 … 합동연설 추진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음달 방미가 확실시되고 있다.

19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다음달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열흘 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다음달 28~29일께 일본 역대 총리 최초로 상하원 합동 연설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954년), 기시 노부스케(1957년), 이케다 하야토(1961년) 등 3명이지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아직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풍성한 외교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다음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는 변함 없을 것이란 대외적 과시도 가미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아베 총리가 넘어야 할 난제로 작용한다. 민주당 혼다 의원은 현지 소식통과의 간담회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에 와서 대통령과 의장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상하원 합동 연설까지 하는 것은 큰 특혜"라며 "만일 아베 총리가 연설하게 된다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한 사실을 사과하고 의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번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그가 기회는 얻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단체 "아베 총리 의회 연설 반대"

한편 미주 한인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반대하는 운동에 들어갔다.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8일(현지 시간)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에 반대하는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아베 총리의 역사관은 미국 국민이 고수해온 가치에 위배된다. 아베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송병형기자 [illegible]

튀니지 총격테러로 21명 사망 18일(현지시간)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국립 바르도 박물관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테러로 관광객 17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튀니지 내무부가 밝혔다. /AP 연합뉴스

롯데도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롯데쇼핑 직원 10명 소환 조사

검찰의 대기업 수사 칼날이 신세계에 이어 유통업계 1위 롯데쇼핑으로 번졌다.

19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백화점·마트·시네마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롯데쇼핑 본사와 각 사업본부의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명을 소환해 문제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유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열사에 유입된 문제의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으며 그 규모는 현재까지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롯데의 수상한 자금은 2013~201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당시 검찰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2롯데월드 사업 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특혜기업으로 꼽혀 온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정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은 2013년 7월 백화점·마트·슈퍼·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검찰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사가 들어올 경우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무형의 법인으로 백화점·마트·시네마·슈퍼 등 개별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어 계열사 간 자금 유입과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본사와 사업본부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예산 담당 실무 직원 5명이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사용처 확인을 의뢰한 내용에 대해 이동 자금은 신입사원 면접비 지급, 부서 회식비, 교통비 등 업무 활동비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보라기자

재고 증가… 우울한 유업계

1~2년 지속 전망…신제품 개발 투자 절실

우유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재고가 많아지면서 유업계가 고민에 깊어지고 있다. 넘쳐나는 우유 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이어 낙농진흥회도 두 번째 자율 젖소 도축을 의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진흥회가 발표한 지난해 말 우유재고량은 사상 최대치인 23만2572톤을 기록하며 2013년 9만2677톤과 비교해 2배 이상 솟구쳤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소속 낙농가 1800여곳당 3마리씩 젖소 5400여마리를 도축하기로 의결해 1월부터 도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우유 생산이 더 늘어나 재고가 넘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유생산량은 2013년 대비 5.9% 늘어난데다 지난해 1분기보다 최고 3.5% 증가한 56만~56만5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하루 평균 생산량은 6040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9% 상승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계들의 시장상황은 지난해에 이어 점점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국내 우유재고는 전년대비 23만2000톤으로 150% 급증했다. 유업계 너나할 것 없이 초토화 상태를 맞으면서 우유 소비량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유 재고 감축을 위해 자체 생산량 자율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든 소비량 대비 늘어난 재고 탓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유통업계에 판매하는 원유는 현재 한 자릿수 성장세에 그쳤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지난해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 않은 상태다. 올해도 저출산과 업체별 경쟁 악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실적부진 탈피를 장밋빛 전망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1~2년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것이란 예상도 잇따르고 있다.

업체들은 매진율 개선을 위해 효율화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의 신사업 발굴 노력은 올 한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유업은 아이스크림 믹스 등 원자재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고 남양유업은 상반기 내 생수와 탄산수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출혈을 감안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전했다.

/정혜선기자 mfs0723@metroseoul.co.kr

껍질째 먹는 키위 보셨나요? 홈플러스는 19일부터 전국 140개 점포에서 키위베리를 4380원에 판매한다. 키위베리는 껍질째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다래과 과일로 비타민 A·C·E를 비롯해 포타슘과 마그네슘 등 20여 가지 중요 영양 성분을 포함했다. /홈플러스 제공

골프웨어 시장 '봄 바람'

중견 패션·아웃도어 군침 "매장 확보·정체성 중요"

까스텔바작 매장 내부 /형지 제공

골프웨어시장에 신규 브랜드가 대거 진입하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개의 브랜드가 시장 진출을 알렸다. 중견 패션 기업을 비롯해 성장세가 둔화된 아웃도어에서도 신 성장동력으로 골프웨어를 보고 있다.

중견 패션 기업 세정과 형지는 각각 '헤리토리 골프'와 '까스텔바작'을 론칭하며 골프웨어 시장에 첫 진출했다.

형지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세정은 멀티 매장인 '웰메이드'에 입점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 디자인에 매월 새로운 테마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여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꾀한다. 지난해에만 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100억원대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형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콘셉트를 내세웠다. 지난해 까스텔바작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해 이달 본격적으로 매장을 내기 시작했다. 현재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까지 매장 60개 오픈을 목표로 판매처 확보에 속도를 낸다. 일상생활에서 착용해도 무난한 봄 신상품을 선보여 30~40대를 공략할 방침이다.

아웃도어 업체도 캠핑 키즈에 이어 새 먹거리로 골프웨어를 보고 있다. 기능성 의류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기존에 아웃도어를 입고 골프를 즐기던 소비자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K2가 론칭한 와이드앵글은 올해 2월 기준 총 90개의 매장을 확보했다. 상반기까지 100여 개로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롯데주류 '청하'로 우리술 한류

청하 수출량 2년만에 66% 증가

롯데주류가 '청하'의 수출량이 2012년 4만2000상자에서 2013년 6만1000상자, 2014년 7만상자로 2년만에 약 6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청하는 2012년 16개국 수출에 이어 지난해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페루·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총 27개국에 수출됐다.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청하' 수출량의 85%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

선운산 복분자주'도 동남아 지역 수출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유럽, 호주 등에 판로를 넓혀 작년 한 해에만 2012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8만6000병을 수출했다.

수출 국가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34개국이던 롯데주류의 수출 대상 국가 수는 2014년 46개국으로 5년만에 30% 증가했다. 수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700억원에서 약 900억원으로 늘었다.

IKEA 한국이 봉?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의 국내 판매 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이케아 제품의 국가별 평균 판매가격을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 가격이 OECD 21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환산한 가격으로 비교해도 한국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이어 4위였다.

조사 대상 49개 제품 중 매매기준 환율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제품은 44개(89.7%)였다.

/김수정기자 ksj0215@

신라스테이 제주 카페테라스

신라스테이 제주…봄날의 여행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떠나는 봄 여행 패키지 출시

신라스테이 제주에서 세 가지 테마의 봄 여행 패키지를 선보인다.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헤븐리 스프링(Heavenly Spring)' 패키지를 추천한다.

호텔신라 수준의 침구를 자랑하는 객실에서의 편안한 쉼과 더불어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12층 루프톱에서 와인 또는 맥주를 마시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객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욕제와 신라스테이 베어로 구성된 기브스세트도 제공한다. 패키지 가격은 19만 9000원(10% 세금별도)부터.

동성 친구들과의 제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해피투게더' 패키지를 눈여겨보자.

객실에서의 1박과 이탈리아 명품 커피인 코바(COVA)커피 2잔을 제공하며 12층 루프톱에서 와인 또는 맥주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다.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트래블 파우치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가격은 17만 9000원(10% 세금별도)부터다.

신라스테이 제주 스탠다드 패밀리 트윈.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러블리 마이 베이비' 패키지가 안성 맞춤이다.

패밀리 트윈 객실 1박과 신라의 맛을 담은 조식 2인, '키즈 러브 웰컴'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로 웰컴에는 초록마을의 유기농 스낵과 신라스테이 베어가 포함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공룡테마파크인 제주공룡랜드 입장권 2매를 제공한다. 그 밖에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제품 안전성을 통과한 제품으로 준비된 유모차, 젖병소독기, 침대 안전 가드를 대여해 준다. 패키지 가격은 17만 9000원(10% 세금별도)부터다.

신라스테이 제주 오픈을 기념해 3월 한달간 신라스테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여행기자가 직접 쓴 여행책자를 1권씩 제공한다.

패키지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객실 예약과 문의는 (02) 2230-5660~1, www.shillastay.com

/정지은기자 sense7@metroseoul.co.kr

더 리버사이드 호텔 '웨딩 프로모션'

더 리버사이드 호텔이 라운지바 6-1(Six-One)을 선보이는 등 호텔 전관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가격의 웨딩 프로모션 2종을 내놓았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잔여타임 이벤트로 금요일과 일요일 저녁웨딩의 경우 식대 한식갈답 3만9600원에 음주류 무제한, 홀대관료 무료, 꽃장식 최대 200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 리버사이드 호텔 등잔치 진행 시 돌상패키지와 1박 혜택이 주어진다.

또 토요일 예식의 경우 식대 4만6000원(VAT 포함), 음주류 무제한, 홀대관료 무료, 꽃장식 최대 100만원을 할인하며 중식당 따중 6인 상견례 이용권을 추가 증정한다.

이번 웨딩 프로모션은 더 리버사이드 호텔의 동시예식 홀인 콘서트홀·그랜드볼룸 2개의 홀과 복제식 분리예식홀인 노벨라 홀 모두 적용된다.

/김보라기자 kimbr@

한미약품 최대규모 기술 수출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개발 중인 신약을 수출했다.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와 현재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릴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71224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과 허가, 생산과 상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또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우선 받게 된다. 이후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 과정에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6억4000만 달러를 받는다. 상업화 이후에는 로열티도 지급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개발 성공 시 계약금과 마일스톤만 7800억원에 달해 국내 제약사의 기술 수출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HM71224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작용하는 효소인 인체의 BTK(Bruton's Tyrosine Kinase)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현재 1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2상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과 릴리는 류머티즘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푸스)과 관련된 신장염, 쇼그렌 증후군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HM71224 개발을 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아덴, 25만명에게 '골드캡슐' 증정

세라마이드 성분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한 엘리자베스아덴이 세라마이드 과학 25년을 맞았다.

세라마이드 캡슐은 1991년 첫 출시된 이래 25년 동안 사랑 받으며 엘리자베스아덴의 베스트 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엘리자베스아덴은 이 세라마이드를 금색의 캡슐에 담았다. 하나의 캡슐은 가장 효과적으로 피부에 필수적인 세라마이드 효과를 전달하는 최적의 양으로 구성돼 있다.

세라마이드 캡슐 세럼은 세라마이드와 피토스핑고신 피부 보호벽에서 발견되는 다른 필수 지방질을 함께 피부에 전달하며 이 성분들의 이상적인 조합은 노화의 징후들에 대응하는 피부 보호벽을 강화해 피부 노화를 방지해준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세라마이드 과학 25년 스페셜 샘플링
기간: 2.23(월)~3.31(화)
25만 명에게 드리는 골드캡슐 찬스
본 광고를 찍어 엘리자베스아덴 매장을 방문하시면, 골드캡슐 2캡슐을 증정합니다

한편 세라마이드 캡슐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샘플링 이벤트(사진)를 연다.

/김수정기자 ksj0215@

넥슨-엔씨 경영권분쟁 재점화되나

27일 주총 분수령 될 듯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이 최대주주로서 엔씨소프트 주총장을 찾아 넥슨 측 이사 선임 등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넥슨은 엔씨소프트의 지분 15.0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9.98%를 보유한 2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김 대표의 지분은 10.16%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넷마블이 엔씨소프트의 자사주 8.9%를 매입하면서 3대주주가 되면서 넷마블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이 좌지우지 하게 됐다. 물론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황이라 엔씨소프트와 밀접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넷마블이 김택진 편에 서면 김택진 우호지분은 18%가 넘어 넥슨의 15%를 누를 수 있다. 넥슨의 편에 서면 넥슨의 지분이 23.9%로 김택진 대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27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주총을 연다. 넥슨 관계자는 "대주주인 만큼 경영진이 엔씨소프트 주총장에 참석할 것"이라며 "어느 선에서 참석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의 갈등은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인수한 후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넥슨은 지분 확보에 대해 당시만 해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전 논의가 없었던 만큼 단순투자라는 약속이 지켜질지 주시할 것"이라며 경영권 참여를 경계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피폭도시'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대표 권혁빈)는 자사의 온라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신규 도전 모드 '피폭도시'를 업데이트 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피폭도시' 업데이트는 공습에 의해 폐허가 된 도시에 생체병기가 출현한다는 스토리로, 강력한 생체병기의 공세를 막아내는 게 주요 임무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몬스터와 거대보스 아틀라스를 맞서는 팀원 간의 협동과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게 특징이다.

이번 업데이트에선 공격기술이 강화됐다. 밀집해 있는 몬스터 사이를 빠른 속도로 뚫고 지날 수 있는 액션 스킬인 '슬라이딩'과 타격을 통해 몬스터들을 공중으로 띄워 연계 공격이 가능한 '들려차기', 맵 내 8곳의 스페셜 웨폰 포인트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스페셜 웨폰 랜덤 생성'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음 달 15일까지 '피폭도시에서 생존하라!'를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피폭도시에서 업적을 달성하라!' 이벤트로 총 5단계로 이뤄진 3가지 업적을 모두 클리어 할 때마다 푸짐한 아이템을 지급한다.

피폭도시 모드에서 최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상위 유저 5명에게는 순위 별로 문화 상품권을 증정한다. '피폭도시' 모드를 플레이 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이번 신규 모드 관련 크로스파이어 페이스북 페이지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친구를 소환하면 추첨을 통해 멤버 거 교환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중 피폭도시 모드를 플레이하면 획득 경험치와 GP를 2배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송정훈기자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 입장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과 제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격이기에 어떻게든 실력행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엔씨가 넥슨에게 꼬리를 자르는 까닭은 최근 넷마블과의 제휴를 전제로 모바일게임 프로그램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엔씨 경영진이 이를 상쇄하고 지분도 확보하는 등의 복합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넥슨은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로 변경했다.

엔씨소프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넷마블과 손잡고 지난달 상호지분 투자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전략도 넥슨 입장에선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사는 이후 대화 채널을 단절했다.

양사 주총을 기점으로 엔씨소프트 글로벌 모바일 사업을 소재로 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일본에서 열리는 넥슨 주총에서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엔씨소프트 문제해결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넥슨 주주입장에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엔씨소프트는 국내 전자결제 1위 기업 KG이니시스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 진출했다.

엔씨소프트는 450억원 규모의 KG이니시스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차세대 결제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금융산업 혁신 모델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한 CB는 4년 만기로 발행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며 엔씨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7%의 지분을 확보해 KG이니시스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김승호기자 fun@metroseoul.co.kr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넥슨, 中 바이두모바일게임과 '몬몬몬' 서비스 계약

㈜넥슨(대표 박지원)은 19일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2D 몬스터 RPG(역할수행게임) '몬몬몬'이 세계 최대 중문 검색 포털 바이두의 자회사 바이두모바일게임(대표 쾅께이)과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몬몬몬'은 독특한 전투시스템과 600여 종이 넘는 '뮤몬(몬스터)'을 육성하고 수집하는 등의 재미를 갖춘 게임으로, 국내뿐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대만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넥슨은 중국 현지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춘 현지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iOS버전과 안드로이드OS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넥슨 박지원 대표는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몬몬몬'이 바이두모바일게임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현지화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두모바일게임의 진효리 례의사업 책임자는 "'몬몬몬'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박진감 넘치는 전투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중국에서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내 모바일게임 서비스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몬몬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몬몬몬'의 이번 계약은 넥슨M(NEXON M. INC.)을 통한 북미, 유럽, 일본 지역, 가러나와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이어 세 번째 글로벌 수출 성과다. /송정훈기자

그라비티, 신규 모바일게임 '전투의 신' 출시

글로벌 게임기업 그라비티(대표 박현철)가 자체 개발한 한 손 전투 액션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전투의 신'이 19일 구글 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했다.

2015년 그라비티의 신작 포문을 열게 된 '전투의 신'은 RPG에 AOS(전략전투)요소를 가미해 전략 전투 플레이가 가능하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부터 대형화면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최적화 돼 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짜릿한 액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전투의 신에서는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는 4월 2일까지 글래식 1부터 10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하면 루비 50개(게임머니)를 증정한다. 또 게임을 플레이하고 스토어에 별점과 리뷰를 등록하는 모든 게이머에게 20루비를, 공식 카페에 가입만 해도 루비 30개를 우조건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라비티 전투의 신 서문성수 PD는 "이제 본격적인 구글 스토어 정식 출시를 발판 삼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좋은 게임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송정훈기자

metro entertainment

트럭 타고 거리 가는 클래식

트럭을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클래식을 전파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지휘자 함신익(57)이 이끄는 심포니 송이다. 이들은 19일 미양초등학교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100회가 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오케스트라 중 공연을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무대를 가진 곳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는 트럭이라는 우리들 만의 무대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로 심포니 송(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이라 이름지었다"고 흐뭇해하는 지휘자 함신익을 만났다.

함신익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 달동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똑을 굶지 않는 게 우선인 그곳에서 클래식은 딴 세상 이야기였다. 하지만 교회에서 성가 반주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이끌고 피아노학원을 찾았다. 함신익이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끼니를 걱정하던 그 시절 어머니가 어떻게 레슨비를 마련했는지 신기해요. 처음에는 지기 싫다며 도망도 다녔지만 피아노는 제 유일한 삶의 돌파구였죠."

음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그는 전국대학교 음악과를 수석 입학했다. 지휘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은 교회 어린이 성가대를 이끌고 전국 합창대회에 나가 우승하면서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달동네 꼬마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기적이라고 입을 모였다. 아들을 지휘했던 함신익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다.

"미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이곳저곳 원서를 보냈더니 텍사스 남부 주립대에서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손에 달랑 200 달러를 쥐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그는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공부했다. 그의 재능과 잠재력을 일이본 도널드 뉴먼 교수의 눈에 들어 꿈에 그리던 이스트만 학교에 진학했다. 지휘 공부를 위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그는 뜻을 같이하는 단원들을 모아 킴스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이후 킴스 오케스트라는 이스트만 지역의 명물이 됐고, 예일대학교 교수 함신익을 만드는 자양분이 됐다.

"한국에 들어와 대전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을 거치며 한국적 색깔이 있는 우리만의 오케스트라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심포니 송은 "국민 모두에게 라이브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지휘자 함신익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 정기 공연은 물론 'The Wing-날개'라고 이름 붙인 트럭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음악을 전하는 신개념 클래식 공연도 펼친다. 리모콘으로 조작되는 트럭 무대는 완벽한 앰프와 음향반사판, 스피커 등을 갖췄다. 단추 하나로 좌우 8.5m×6.5m 높이 2.5m의 무대가 완성된다. 4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기를 들고 무대에 서도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하다. 19일 첫 무대는 함신익이 나고 자란 고향 삼양동의 미양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모교인 삼양초등학교에서 첫 무대를 꾸미고 싶었지만, 삼양초는 진입로가 좁고 교문이 작아 트럭이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웃 학교인 미양초등교를 선택했어요."

20일 두 번째 무대는 함신익이 3년 동안 복무한 양주 26사단에서 펼쳐진다. 4월에는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 울산, 여수, 여의도 벚꽃축제 등을 찾아간다. 소록도, 교도소 등 심포니 송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 방문할 계획이다.

심포니 송은 기업, 재단, 개인의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된다. 서울 도산공원 사거리 EG빌딩 지하에 사무실과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습공간도 마련됐다.

"우리 단원들은 클래식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공연 준비도 다른 오케스트라의 몇 배 이상을 하죠. 지금은 공연 때마다 수당 형식으로 페이를 지급하지만 향후 월급을 지급하는 고정 단원들을 늘려갈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김현정기자 kh@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심포니 송 지휘자 함신익

1년 100여 차례 공연 계획 "국민 모두에게 라이브 감동" 고향 삼양동 성공적 첫 무대

star bag

사랑에 빠진 소녀 변신

배우 박신혜가 따뜻한 봄날 사랑에 빠진 소녀를 콘셉트로 한 주얼리 화보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인 그는 이번 화보에서 봄에 어울리는 화사한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여신 자태'를 뽐냈다.

패션지 화보 수익금 또 기부

지누션의 션이 나이키 에어웨어와 함께 한 패션지 아레나 화보 수익금 2000만원을 온라인 공익 포털 해피빈 재단에 기부했다. 또 나이키 에어웨어 애장품 경매도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션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푸르메재단이 짓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쓰인다.

일본서 첫 단독 콘서트

가수 정동하가 오는 22일 오후 2시와 6시 2회에 걸쳐 일본 도쿄 시부야 듀오 뮤직 익스체인지(DUO MUSIC EXCHANGE)에서 첫 단독 콘서트 '비긴(BEGIN)'을 개최한다. 소속사 예당어 뮤직은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현지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건·한재영과 한솥밥

독립영화에서 활동해온 배우 여학주가 장동건, 한재영 등이 소속된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여학주는 다수의 연극과 독립영화에 출연한 배우다. 지난해 단편영화 '12번째 보조사제'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SM C&C는 "이미 검증된 연기 실력을 갖춘 배우"라고 전했다.

한·중 그리고 북한 경계에 선 고뇌

재중동포 작가 최헌기 성곡미술관서 개인전

성곡미술관이 올해 첫 기획전시로 20일부터 4월 31일까지 '최헌기' 전을 연다.

최헌기 작가는 1962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 베이징 중앙미술원에서 수학한 재중교포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경계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에선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정체성의 혼란과 새로움에 대한 모색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또 급격한 현대화에 따른 아노미와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회의와 고민도 나타나 있다. 그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각자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낯설음과 거북함, 적응과 동화 과정의 자위를 작품에 녹여냈다.

이번 전시회는 최 작가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작품을 망라하는 자리로 회화와 설치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1관에선 1990년대 '자화상 시리즈'와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예술관의 변화를 담은 회화 작품을 볼 수 있다. 고전 예자를 오브제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물질의 재료 실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2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기존의 가치와 정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시대의 현실과 당대정신과의 조화 속에서 다시 새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담았다. 또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서구 문화의 범람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표현했다.

/장지은 기자

태명시리즈-홍

머뭇거려도 괜찮아, 청춘이니까

현실과 이상 앞 고민하는 스무 살… 공감가는 캐릭터·대사·연기

film review

/정병준기자

■스물

청춘이라는 말에는 희망과 긍정의 기운이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청춘을 통해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기란 너무 어렵다. 대학입시와 취업 등 지금 이 나라의 아이들은 꿈과 열정을 추구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현실에 내리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위로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세 아이들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막을 연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닌 길 앞에서 아이들은 고민에 빠진다. 대기업 입사가 꿈인 경재(강하늘)는 현실을, 만화가가 되고 싶은 동우(이준호)가 이상을 선택할 때 치호(김우빈)는 아무런 꿈이 없다며 갈림길 사이에 있는 들판을 걸으려 한다. 누군가는 안정을, 누군가는 열정을 선택할 때 누군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각자의 판단으로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했지만 어떤 길도 순탄하지 않다. 경재는 사상의 선실이라는 대학에서 미친 듯이 술을 들이키는 청춘들을 보며 판단한다. 동우는 힘든 가정 형편에 연애도 포기한 채 가까스로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나마 치호는 우연찮게 접한 영화 촬영현장에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그 꿈을 이미 이룬 영화감독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마"라고 조언할 뿐이다.

무엇이든 이룰 것 같았던 스무 살도 알고 보면 미숙하고 찌질한 순간들로 채워진다. 스무 살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어떤 길도 선택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음을 깨닫는다. '스물'은 청춘을 꿈과 열정이라는 달콤한 말로 담지 않는다. 혹은 힘들어도 견뎌내는 것이 청춘이라고 쉽게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이 청춘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현실감 있는 캐릭터, 재치 넘치는 대사, 그리고 코믹한 연기가 뒤섞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영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청춘의 이야기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다만 그 공감대가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그럼에도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문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인 청춘영화라는 점에서 오래 기억하고 싶다. 15세 이상 관람가. 3월 25일 개봉.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금)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3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20 떡잎부터 [illegible]	00 [illegible] 25 뽀뽀 Pop! Pop 40 [illegible]
19시	00 KBS 뉴스 7 30 독특한 소비자 리포트	30 달콤한 비밀 [illegible]	15 불굴의 차여사 [illegible]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illegible]	00 [illegible] 20 스쿨랜드 [illegible] 30 초등 영어 [illegible] Family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6회)	30 VJ 특공대	00 [illegible]	00 SBS 8뉴스 55 궁금한 이야기 Y	00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3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 11회	30 리얼스토리 눈		00 세계의 교육현장 <재> 30 문화유산 [illegible] 4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거꾸로 교실의 마법 1:1,000의 교실 55 숨터	00 2015 KBS 드라마 스페셜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 12회	00 나는 가수다	00 정글의 법칙	50 다큐 고부 열전 <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생방송 [illegible]	10 용감한 가족 (8회)	15 나 혼자 산다	35 웃음을 찾는 사람들 스페셜 [illegible]	20 세계의 [illegible] <재>
24시		30 유희열의 스케치북	35 MBC 뉴스 24	5 다이빙라이브 50 불타는 청춘 베스트	00 EBS [illegible] <재> 3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10 썰전 (107회) <재>		00 2015 이스티로드 (7회)	00 TV 동물농장 (407회)	19:00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울산모비스 VS 창원LG MBC스포츠+
19시	55 JTBC 뉴스룸	10 슈퍼대디 열 (2회) <재>	00 오늘 뭐 먹지? (27회) 30 오늘 뭐 먹지? (30회)		
20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6회) <재>	30 슈퍼대디 열 (3회)	00 올리브쇼 2015 (7회)	00 의고자 [illegible] 3부 [illegible]	
21시	45 학교를 왔어	40 텐 시세끼 [illegible] (3회)	00 [illegible] 2 (6회) 30 2015 테이스티로드 (3회)	00 <길들지 않은 대륙 아메리카> 1부 [illegible]	
22시			30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 (7회)	00 <길들지 않은 대륙 아메리카> 2부 [illegible]	
23시	00 마녀사냥 (84회)	20 혈관공기 구하라 (19회)		00 <길들지 않은 대륙 아메리카> 3부 [illegible]	7:00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1차전 OK저축은행 VS 현대캐피탈 KBSN
24시	35 헬조 스페셜 (17회)		00 올리브쇼 2015 (8회)	00 <길들지 않은 대륙 아메리카> 4부 [illegible]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윤석민 복귀전 '그럭저럭'

143㎞ '씽씽' 2이닝 2실점… '홈런 3방' 롯데, 한화 대파

윤석민(29 KIA 타이거즈·사진)이 국내 복귀 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해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메이저리그 입성 꿈을 접고 친정으로 돌아온 윤석민은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KBO 시범경기에 선발로 나서 2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내주고 2실점(1자책)했다.

KIA가 측정한 이날 윤석민의 최고 구속은 시속 143㎞였다. 시속 150㎞에 육박하는 강속구는 아직 선보이지 않았지만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 등으로 완급 조절을 하며 정규시즌 선발 등판 상황을 대비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 시즌을 보낸 윤석민이 KBO 공식경기에 선발 등판한 건 2013년 7월 31일 광주 무등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596일 만이다.

경기 후 윤석민은 "직구 위주로 던지면서 체인지업과 커브 등을 섞어 완급조절을 했다"고 투구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는 두산의 4-3 승리로 끝났다. 두산 민병헌은 3-3으로 맞선 8회말 펜스 앞까지 가는 대형 2루타를 날려 결승점을 뽑았다.

신생팀 KT 위즈는 수원구장에서 겁없는 새내기 박세웅(20)을 내세워 SK 와이번스를 3-2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지난해 1차 지명선수로 KT에 입단해 퓨처스리그에서 9승3패 평균자책점 4.12를 기록한 박세웅은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박세웅의 직구 구속은 140㎞대 초반이었지만,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를 고루 섞어 SK 타자들을 요리했다.

SK 선발 밴와트는 3이닝 동안 7안타를 내주며 3실점해 기대에 못 미쳤다. 이어 등판된 김광현은 3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했다.

대전구장에서는 홈런 세 방을 터뜨린 롯데 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를 12-0으로 대파했다.

앞선 2경기에서 호투했던 한화 선발 미치 탈보트는 5⅓이닝 동안 7안타와 볼넷 3개를 내주고 7실점했다.

디펜딩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는 야마이코 나바로와 구자욱의 홈런포를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6-5로 따돌렸다.

삼성 공격의 선봉장인 나바로는 1회초 선두타자 2루타에 이어 5회초 3점홈런을 쏘아 올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신예 구자욱은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포를 터뜨리며 류중일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목동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넥센 히어로즈를 10-2로 물리치고 시범경기 1위로 올라섰다. 장단 11안타를 몰아친 LG는 이병규(9번)와 채은성이 홈런포를 가동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세 경기째 '침묵'

디트로이트전 삼진 2개… 3타수 무안타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사진)가 시범경기 세 경기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정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든턴의 매케크니 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삼진 2개를 포함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의 시범경기 타율은 0.176에서 0.150으로 내려갔다.

시범경기와 자체 평가전에서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며 시험받고 있는 강정호는 수비에서는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타격의 기세는 초반보다 수그러든 상황이다.

메이저리그 첫 실전을 홈런포로 장식하고 두 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이후 3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스턴과 시범경기에서 1안타를 때린 이후 다시 3경기째 침묵하고 있다.

강정호는 1회초 첫 타석에서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볼카운트 0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떨어뜨린 상대 선발 셰인 그린의 시속 127㎞(79마일) 변화구에 속아 방망이가 헛돌았다.

5회말에도 다시 2사 1루에서 세 번째 타석에 섰으나 또 공 삼진에 그친 강정호는 7회초 수비 때 구스타보 누녜스로 교체됐다.

한편 피츠버그는 홈런 3방을 몰아치며 7안타로 8득점, 산발 14안타로 6득점에 그친 디트로이트에 8-6으로 이겼다.

/정병호기자

메시 '원맨쇼'… 바르샤 챔스 8강행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바르셀로나(스페인)가 리오넬 메시(왼쪽)의 활약에 힘입어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AP 연합뉴스

맨시티 침몰로 프리미어리그 팀 전멸

바르셀로나(스페인)가 리오넬 메시의 '원맨쇼'에 힘입어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를 꺾고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8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전멸했다.

바르셀로나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메시의 킬패스에 이은 이반 라키티치의 결승골로 잉글랜드의 맨시티에 1-0 승리를 거뒀다.

메시는 전반 32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들어가다 수비수 3명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헨 티아 밍을 죽인 뒤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비어 있던 골 지역 왼쪽으로 쇄도해 들어가던 라키티치가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반대편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에게도 절호의 찬스는 있었다. 후반 22분 세르히오 아궤로가 제라르드 피케에게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골대 왼쪽으로 향한 아궤로의 슈팅은 마르크-안드레 테르 슈테겐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 말았다.

같은 날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이두나 파크에서는 유벤투스(이탈리아)가 홈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에 3-0 완승을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8강에 합류했다.

이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팀이 모두 가려졌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 팀을 올려놨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강에 올랐다.

프랑스 리그앙은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 두 팀을 진출시켰다. 독일 분데스리가(바이에른 뮌헨), 이탈리아 세리에A(유벤투스),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포르투)가 각각 한 팀씩 8강에 보냈다.

유럽 최고의 인기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한 팀도 8강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첼시와 아스널은 프랑스 리그앙 소속 파리 생제르맹과 AS 모나코에 덜미를 잡히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8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난 2012-2013 시즌 이후 두 시즌 만이다.

한편 8강 대진 추첨은 20일 오후 8시 스위스 니옹에서 진행된다.

/정병호기자 anlaman@

음악만으론 먹고 살기 힘든 인디밴드

기자 수첩

김 민 지
<문화스포츠부 기자>

지난 2월 밴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이하 구남)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서 '이사야레코즈'라는 레이블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와 함께 새 앨범 '변화워'와 관련된 흥미로운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했다.

20만원만 내면 오디션 없이 새 앨범의 코러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1000만원을 지불할 경우엔 멤버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지난 10년 간 홍대 인디신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을 가진 구남은 음악가로 살아남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음반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처지기 우리의 운명이란 것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삶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도가 꽤 높은 구남도 앨범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돈만 내면 코러스 참여'라는 모험을 택했다. 일각에선 음지기 아들의 앨범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비치기도 했지만 이들에겐 별 다른 선택이 없었다.

꽤 잘 나가는 밴드도 새 앨범 제작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택하는 마당에 다른 밴드들의 사정이 나을 리가 없다. 대부분의 인디 밴드에겐 앨범 판매와 공연을 빼면 마땅히 할 수입원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타 과외 글을 꾸준히 올린다고 했다. 밴드 활동만으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것이다. 홍대에서 활동 중인 한 퍼커셔니스트는 음악인의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10년 째 '알바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유지선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음악을 포기하기도 한다.

최근 음악 시장이 음원과 디지털 싱글 중심으로 돌아가고 음악 방송도 '다양성' 대신 '인기 가수'를 택하면서 인디 밴드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예술은 원래 춥고 배고픈 법"이라기엔 음악인들이 본업을 포기할 만큼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신선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날씨

3/20 金 일출 06:37 일몰 18:4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천식관리를 위해서는 이불이나 쿠션 속에 진 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환기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 가능지수
뇌졸중 가능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자료제공: 고려대학교 서울학술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같은 회사 동료와 '썸 타는' 사이…인연 맞나
사랑과 믿음은 상관관계…곰곰이 생각하라

아이디: 생년월일 비공개

Q 사주 속으로의 독자입니다. 제혼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당사자들은 조건이 없는데 주변에서 입소문만 나서 선생님께 생년월일을 비공개로 요청 드렸니다. 서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데 같은 직장입니다. 작년 봄부터 입소문만 나고 당사자 간에 진전이 없는데 이분이 인연이 맞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음에 새기는 명문명언이라는 책에 써져있는 글을 옮겨 보겠습니다. ~ 사랑과 믿음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룹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믿게 되어 한 치의 의심도 무려 움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랑은 외모와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는 듯합니다. 현대인의 욕심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내면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삶의 가치관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뢰의 탑을 쌓기보다는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오래가는 사랑을 하려면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랑하다 헤어져 아픔을 겪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둘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랑도 함께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 사주적인 상담도 중요하겠으나 위의 내용이 두 분에게 더 맞는 내용 같아 옮겨보니 현재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속으로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상담의뢰하실 적 생일의 음력양력과 남녀를 구분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개 지면이므로 비공개보다는 궁금하신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 지면에서 답을 어상의 내용이 적혀서 올라오는 것이 보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관계뿐이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주택 물건 등에는 궁합이 존재합니다. 궁합이 다르면 내부에서는 갈력이 많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며 좋은 궁합은 내면을 보면 아주 뚜렷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인터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3			2				6	
5				9		8	2	
	1		3		9			
		4				7		
			7		6		1	
	5	2		7				9
	6				8			2
8								7

			7	5		6		2
					9	3		
			3				1	8
		7				1		6
			2	4	1			
4		1				5		
7	4				2			
		2	1					
3		9		6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펀사 스도쿠 프리미어
(저자: 고든 스웨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3월 20일 (음 2월 1일) 사주스타 www.ansiat.com 1900-1390

쥐 48년생 양보하면 좋은 성과가 생깁니다. 60년생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72년생 주위사람에게 단점을 봅습니다. 84년생 자만하지 마세요.

소 49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세를 바꿔보세요. 61년생 이러놓을 어거니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가는세이 참 잘 어울립니다. 85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미이 나질 않습니다. 62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뜻게 마무될 것입니다. 86년생 길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토끼 51년생 삶을 더욱 정열적으로 사세요. 63년생 오랜만에 돈벌을 뭅니다. 75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87년생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용 52년생 무턱대고 일을 벌였다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4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76년생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88년생 급작 이성인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뱀 53년생 빈집자로 인해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분수를 알아야 흉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일을 섞기고 용식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말 54년생 이해갈이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66년생 윗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78년생 현상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0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 보세요.

양 55년생 주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67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9년생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뜻밖에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이웃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68년생 지금 한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0년생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소원이 성취됩니다. 92년생 지금까지 껄끄러웠던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닭 57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69년생 일에 있어서 중재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81년생 관계 구설을 조심하세요. 93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길합니다.

개 58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70년생 귀하의 능력을 알아줄 기관을 만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길합니다. 94년생 직장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돼지 59년생 억지로 일이 벌이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1년생 지금 상황에 만족하세요. 83년생 확실하게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아주 무난한 하루입니다.

뿌리 깊은 포스코·흥우 커넥션

2005년 윤상림 게이트 서 포스코건설–흥우산업 뒷거래
4년 뒤 정준양 회장 시절엔 1200억원대 공사 몰아주기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사옥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의 뿌리도 깊었다.

19일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이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흥우산업 등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흥우산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2009년 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때 1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흥우산업과 계열사인 윤하산업, 흥우건설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은 정 전 회장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드러난 희대의 법조 브로커 사건인 '윤상림 게이트'에서도 두 업체 간 커넥션은 확인된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한 사건이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현승 흥우산업 대표는 브로커인 윤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네고 2000만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포스코건설이 신축 중이던 부산 망미동 아파트 토목공사를 흥우건설이 따내도록 해 준 대가였다. 당시 윤씨는 포스코건설을 찾아가 검찰과 경찰 인맥을 과시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이때 포스코건설은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 사건에는 현직 검사장이 등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용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100만원짜리 수표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정책홍보실장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황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매제다. 그는 "2002년 평택지청장 근무 시절에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처남이 선물을 사주라고 3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그는 대구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 수표 사건으로 이 대표와 윤씨가 2002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5년 포스코건설 커넥션을 계기로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4년 뒤인 2009년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에서 윤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포스코의 정 전 회장과 정동화 부회장이 등장한다. 이 대표는 언론에 "정 전 회장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정 전 부회장은 (대한건설)협회 행사 등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을 뿐 '먼 발치서 얼굴을 본 정도다.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고 포스코 최고위층과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의 관련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은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매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황 전 차관의 재임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다.

한편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형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포스코 수사에 '안철수 책임론' 다시 고개

검찰의 포스코 그룹 수사를 계기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포스코 사외이사 경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인수 사례인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사외이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안 전 대표를 향해 제기된 비판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경영진의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골자다.

안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0년 4월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는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사외이사들의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강도가 높다. 부패와의 전쟁 차원에서 검찰이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다 검증됐던 얘기들"이라며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안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 실제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국정원, 권력기관 탈피 선언

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은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19일 국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국가안위를 살피고 일치적 대책을 세우는 일에 업무초점을 맞춰 달라"며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아닌 순수한 안보전문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는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고,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보려하지 않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로 치닫는다"며 "국정원은 국가방위 최일선에서 위험요소들이 국가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일해야 한다"며 "전 사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국정원은 깨어서 국가안보의 예리한 촉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병형기자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경영권 포기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새누리당 의원직을 상실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워크아웃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 등 경영악화에 이어 해외자원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벌어지자 19일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자리한 경남기업. /뉴시스

미 당국 "사드 한반도 배치 검토중"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중장인 제임스 시링 MDA 청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가까운 미래에 사드가 한국과 중동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시링 청장은 북한과 이란이 이르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수백개의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발사 모습 /록히드마틴 제공

시링 청장은 서면 보고를 통해서는 4개의 사드 포대가 미군에 인도됐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일찍 2017 회계연도까지 7번째 사드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워 게임을 더 자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험 템포를 늘리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MDA는 우연기의 다중 레이저시스템에 대한 실험비행을 2014 회계연도와 2015 회계연도에 각각 7차례, 12차례 실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6 회계연도에 실험비행은 7차례 더 예정됐다.

/정혜인기자 yooto1@

<학교 폭력>

청소년 32% "학폭 피해 경험"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10명 중 1명 술·도박 등 비행 행동

9~17세 아동 10명 중 3명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술, 담배, 도박 등 비행 행동을 한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월호)에 발표한 '아동의 학교 생활' 학교 생활 만족도, 비행 및 폭력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2013년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아동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그 결과 9~17세 아동 중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32.2%에 달했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남자(33.4%)가 여자(30.9%)보다 거주

지역이 대도시(35.4%)인 경우가 농어촌(25.1%)인 경우보다 각각 더 많았다. 또 한부모·조손 가족(31.1%)에 속한 아동이 양부모 가족(31.1%)에 속한 아동보다 학교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았다.

나이대에 따른 차이도 커서 9~11세의 학교 폭력 경험률(38.6%)이 12~17세(29.7%)보다 8.9%포인트 높았다.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1.5%로 피해 경험에 대한 답변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았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임신, 성폭행, 성희롱 등의 비행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11.3%였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 끝 다음 달 2일 호남고속철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 광주본부가 19일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광주송정역으로 신형 KTX가 들어오는 모습. /연합뉴스

군장성, 캐디에 수차례 성추행

현직 해군 고위 장성이 골프장 캐디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해부터 부대 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동행한 캐디에게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봐라'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자 캐디들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고위 장성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들은 골프장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하소연했고 결국 관리소장이 관할 부대장에 이를 보고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해군은 A준장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캐디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장성이 캐디들에 노래를 시켰다는 등 일부 내용은 확인됐다"며 "아직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younal@

봄 단장하는 청계천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17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봄맞이 대청소 작업이 실시됐다. /연합뉴스

마곡지구에 이화여대 의대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전 계획 통과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강서구 내발산동의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이대 의과대학과 목동병원은 양천구 목동에 700병상 규모로 조성됐지만 부지가 좁아 병원과 대학시설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마곡지구로 이전함으로써 장기적 발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첨단지식 중심의 마곡지구 건립 사업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 전체 부지 9917㎡을 일반관리구역 9412㎡와 경관관리구역 505㎡로 구분한다. 일반관리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의과대학을, 경관관리구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이었던 '보구여관'을 복원할 계획이다.

보구여관은 1887년 서울 정동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부인병원으로 고종황제가 이름을 지어 하사했으며 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다.

시설 조성 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주말 진료가 운영된 보구여관 내 박물관과 강당 등 공동체 공간도 개방된다.

/조현정기자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확대

서울시가 현재 지하철 1~4호선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 안전지킴이' 애플리케이션을 5~8호선까지 확대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전동차에 설치된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 신고 즉시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의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에게 통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통화하거나 문자로 상황을 상세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도 있어 현행범을 잡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하철 안전지킴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만2698건이 다운로드 됐고 앱을 통한 신고는 536건이라고 설명됐다. /황재용기자

국립암센터, 100개 암 정보 제공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정보센터가 100개 암종 정보 구축을 완료해 이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암종 정보는 암의 종류별 정의와 관련 통계, 진단과 치료, 생활가이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내가 알고 싶은 암'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사

■ 고용노동부

고용공무원 전보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 인하대

▲ 스마트캠퍼스추진단장 한상웅 ▲ 평생교육원장 김철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 경영기획 류영준 ▲ 방송통신진흥 전재경 ▲ 전파검사 권준용 ▲ 경기 김영구 ▲ 충청 박영석 ▲ 경북 김학웅 ▲ 강원 김태봉 ▲ 제주 전배길 <센터장> ▲ 기획조정실 한수봉 ▲ 전파관리실 전준표 ▲ 방송통신진흥본부 이동성 <부장> ▲ 경영지원 김호경 ▲ 기금관리 어익한 ▲ 기금운용 백남일 ▲ 기금별실기획 부장 직무대행 허향열 ▲ 전파기획 조봉 ▲ 검사기획 최범선 ▲ 자격기획 김순현 ▲ 경영관리 권영모 ▲ 서울본부 검사2부 변영범 ▲ 충청본부사업 양순환 ▲ 경북본부사업 손기철 ▲ 강원본부사업 이준도 <소장> ▲ 진주사업소 조태수 ▲ 김해사업소 이종수

부고

▲ 노수복씨 별세, 박남선(이대여성암병원장) 남궁(서울선동중학교 교감)씨 모친상 = 19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02-2650-5121

▲ 정지용씨 별세, 정준수(서대 교수)·윤수 교수·문희씨 부친상, 권의빈(병원장)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상무, 채병열(주케이101글로벌 마케팅 수석)씨 장인상 = 19일 오전 9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 30분 031-787-1500

▲ 김종익씨 별세, 김하권(회사원)·남권(연합뉴스 경제부 차장) 씨 모친상, 이지연(주부)·김소영(물리치료사)씨 시부상, 김의권(사업)씨 장인상 = 19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30분 02-3010-2231

▲ 박환식(전 서울대 교수, 교원대 명예교수)씨 별세, 박동일(전 점신여고 교감)·진하·동주(캐나다 거주)·애영(미국 노던 버지니아대학 교수)씨 부친상, 주명철(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강병균(국제통화기금(IMF) 근무)씨 장인상 = 19일 오전 2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모란공원 02-2258-5140

▲ 김규자씨 별세, 김대상(한국후지제록스 재정팀장)·금선(前 모아 대표)·준희(티칭글씨) 모친상, 김후남(경향신문 여론독자부장)씨 시모상, 김순준 사업씨 장모상 = 19일 낮 12시 10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2650-2741

▲ 이환원(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대우 전수장관실 사무처장)씨 별세, 수희·은경씨 부친상, 김용수·김윤환씨 장인상 = 18일 오전 7시45분, 고양시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31-910-7444

완벽한 만남.
강력한 파워.
함께 하면 달라집니다.
젊음을 지켜주는 두 제품의 파워를
함께 경험해 보세요 피부가 보다 탄탄하고,
부드럽고, 건강하게 달라집니다.
CERAMIDE Capsules
Daily Youth Restoring
Serum
CERAMIDE
Lift and Firm Day Cream
SPF 30